

● 염일방일(拈一放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를 쥐고 또 하나를 쥐려 하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마저도 모두 잃게 됨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송나라때의 일이다 사마광이 어린시절 있었던 이야기 인데
한 아이가 큰 장독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며 떠들고 있는사이
장독에 빠진 아이는 죽기 직전이였다

이를 지켜보던 사마광은 돌맹이를 던져 장독을 깨뜨렸고
장독에서 나온 아이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어른들의 이기와 무지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상황이었던 것이다

어른들의 계산된 머리, 책임회피로 죽을 뻔한 아이는
한 아이의 지혜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拈 잡을 (념)염, 집을 염 放 놓을 방